

(5/12) 일

기침감기가  
토요일 저녁 소연이 한테 <sup>기침감기가</sup> 돌아서 일찍 자고 일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일어났다 우리 아파트  
독서실은 아침 9시에 열지만 밥 먹고 당카당카 하느라 10시쯤에 독서실 에 가서 공부하고  
1시에 점심 먹으러 집에 왔다 마침 오늘 엄마 아버지가 지인 결혼식에 가느라 집이 비어있었다  
소연이는 엄마가 집에 나가자마자 반강을 듣다가 바로 인터넷 쇼핑물을 귀찮게 들 것  
이다 나도 오랜만에 TV를 싹켜보고 엄마한테 지금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 
왔다고 거짓말을 했다. 저녁 먹고 독서실에 갔지만 마침 독서실에 같은 동네에  
사는 친구가 있어서 놓고 공부 잘 하고 집에 왔다. 오늘 하루 끝